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20세기 음악 감상 영역 비교 분석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송재녕

2009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20세기 음악 감상 영역 비교 분석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송 재 녕

인 준 서

송재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 감상곡의 현황과 구성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선택하거나 수업 설계 시 제재곡과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17종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을 빈도수, 작곡가, 장르에 따라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흠린 피에로>의 내용과 제시 형태를 학습 목표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악곡에서 학습되어야 할 요소를 여러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각 악곡 별로 교과서에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을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곡 횟수가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 시행 시기와 비교하여 2배수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에서 19%, 감상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에서 12%의 비중을 나타냈다.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20세기 음악 작곡가는 드뷔시였고,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흠린 피에로>의 내용과 제시 형태를 학습 목표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거나 서양음악사와 감상곡 간의 연계 학습이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재곡에서 추출되어야 할 학습 요소가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중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음악의 제재곡을 선정하는 기준과 각 악곡 별 학습 목표의 추출,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과 활동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교과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가 음악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학습 내용을 선별하는 관점에 대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 이론적 배경	5
1. 20세기 음악	5
1) 개념	5
2) 역사적 흐름과 작곡 기법	6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2
3. 선행 연구	14
III . 연구 방법	18
1. 연구 대상	18
2. 연구 절차와 분석 기준	19
IV .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	22
1. 교과서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22
1)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22
2)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25

2.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유형별 분석	28
1) 빈도수 분석	28
2) 작곡가별 분석	31
3) 장르별 분석	33
3. 주요 제재곡의 교과서별 내용 비교 분석	36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36
2) 봄의 제전	48
3) 달에 홀린 피에로	62
V. 결론 및 제언	74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내용의 영역과 체계	12
<표-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3
<표-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17 종	18
<표-4> 17종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감상곡의 분석 기준	20
<표-5> 17종 교과서에 제시된 20세기 감상곡의 분석 기준	20
<표-6> 영역별 분석 기준 - 구분과 내용	21
<표-7>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23
<표-8> 교과서 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24
<표-9>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25
<표-10> 20세기 음악의 비율 -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27
<표-11> 악곡별 교과서 수록 빈도수 (2회 이상)	29
<표-12> 교과서에 1회만 수록된 곡목	30
<표-13> 17종 교과서의 20세기 작곡가 별 악곡 현황	31
<표-14> 각 교과서별 수록된 20세기 작곡가 현황	32
<표-15> 연주 형태에 따른 악곡 분류	34
<표-16> 10종 교과서에 제시된 <목신의 오후 전주곡> 학습 목표 유형 ..	36
<표-17>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	38
<표-18>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	39
<표-19>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	45
<표-20> 9종 교과서에 제시된 <봄의 제전> 학습 목표 유형	49
<표-21> <봄의 제전>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50
<표-22> <봄의 제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54
<표-23> 교과서별 <봄의 제전> 감상곡 현황	55

<표-24> <봄의 제전>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59
<표-25> 8종 교과서에 제시된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 유형	63
<표-26> <달에 홀린 피에로>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64
<표-27>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67
<표-28> 교과서별 <달에 홀린 피에로> 감상곡 현황	68
<표-29> <달에 홀린 피에로>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70

그림 목차

<그림-1>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1)	40
<그림-2>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문학의 연계 활동	41
<그림-3>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2)	42
<그림-4 > 악보 <목신의 오후 전주곡> - 주제 A와 B의 제시	43
<그림-5> 악보 <목신의 오후 전주곡> - 주제별 악기 제시	43
<그림-6> 목신의 이야기 삽화 - 「박영사」	44
<그림-7> <봄의 제전>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51
<그림-8> <봄의 제전> 미술, 공연 예술(무용)과의 연계 활동	52
<그림-9> <봄의 제전>의 활동 내용	53
<그림-10> <봄의 제전> 시대적 배경 - 원시주의의 등장	56
<그림-11> 악보 <봄의 제전> - 주요곡별 주제 제시악보	57
<그림-12> 악보 <봄의 제전> - 네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 악보	57
<그림-13> <봄의 제전> 원시주의와 관련하여 제시된 회화	58
<그림-14>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 요소의 개념적 접근 활동(1)	65
<그림-15>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 요소의 개념적 접근 활동(2)	66
<그림-16>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66
<그림-17>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과 회화에서의 표현주의	67
<그림-18> 악보 <달에 홀린 피에로> -구체적 표현에 대한 지시와 기보법 해설	69

부록 목차

- <부록-1> 시대별 분포도-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 <부록-2> 시대별 분포도-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 <부록-3> 악곡별 교과서 수록 빈도수
- <부록-4> 작곡가별 분포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지식산업화의 특징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교육 계획 및 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음악과의 경우에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기본 목표와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교육, 그리고 다양한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강조하도록 현행 교육과정¹⁾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경험하고,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음악 교과에서 ‘20세기 음악²⁾’은 예전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흐름을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업이다. 20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현 시대의 음악을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창의력과 사고력, 예술적 표현력을 키우는 데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민경훈(2012)은 “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음악 학습의 내용 중 하나로 현대음악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은 동시대의 음악사상과 더불어 음악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³⁾라고 하였다.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4

2) ‘현대음악’으로도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각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교과서의 표기 방식에 따랐다.

3) 민경훈(2012), 중등학교에서의 현대음악 감상지도 방법, 예술교육연구 제 10권, 제 1호, p.1

이러한 당위성으로부터 시작된 20세기 음악의 교육은 시대적인 요구로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이미 지도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교과서에서도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음악 교과서의 내용과 질은 음악의 학습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⁴⁾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의 구성과 내용 등을 알아보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20세기 음악을 학습할 때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과서를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음악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교사에게 교과서 분석은 수업 계획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하나의 제재곡을 다룰 때 같은 제재곡일지라도 교과서마다 내용 면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학습 목표나 활동 영역에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 구성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을 포함하여 악곡 자체의 해석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내용을 구성하는 교사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침의 비중이나 위상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교과목의 성격이나 목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되고 또한 장려된다.⁵⁾ 교사는 20세기 음악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검인정 교과서의 바탕 위에 그것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업 시 교과서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기본이 되면 교과서를 벗어난 학습 자료와 환경을 활용할 때에도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4)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p.175

5)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p.2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20세기 음악과 그 학습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선택하거나 수업 설계 시 제재곡과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차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문헌과 논문을 통하여 20세기의 음악의 개념을 알아보고 20세기 음악의 시대적 흐름과 작곡 기법, 음악적 특징 등을 조사한다.

둘째, 분석 기준에 따라 중학교 음악 17종 통합교과서에 나오는 20세기 음악의 내용 및 구성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분석한다.

셋째,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20세기 악곡 3곡을 선정하여 각 교과서에서 나타난 학습 목표와 제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넷째, 위의 교과서 분석과 여러 문헌을 토대로, 선정된 3곡이 20세기 음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와 그 음악적 특징 등을 고찰해보고 교과서에서 수정·보완될 점을 제안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을 서양의 순수 예술 음악에 한정하여 20세기에 작곡된 국악, 세계의 민속 음악, 크로스 오버 장르를 포함한 대중음악과 실용음악 등 넓은 의미의 20세기 음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17종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빈도수별, 작곡가별, 장르별 분석에서는 20세기 음악의 모든 감상곡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제재곡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할 때에는 모든 곡을 다루지 않고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요 제재곡 3곡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20세기 음악

1) 개념

20세기는 새 음악(도. Neue Musik, 라. Musica nova, Musica viva, 동시대 음악, 현대음악, 아방가르드 음악)의 세기이다. 새 음악⁶⁾이란 명칭은 이미 다른 시대에도 있었다.⁷⁾ 20세기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움’이란 의미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의 시대구분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특징지어지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20세기 음악이 이전의 음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몇 세기에 걸쳐온 조성과 관련된 전통과의 단절이다. 거기에 새로운 양식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음악이라는 개념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도출되고 그에 따라 음악관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로 20세기 음악은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21세기의 음악에서도 여전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세기가 되어버린 20세기 음악이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이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결국 ‘음악’ 앞에 붙는 ‘현대’는 시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양식적인 개념, 즉 음악양식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을 뜻하는 용어에 훨씬 가깝게 쓰인다.⁸⁾

6) 중세의 ‘아르스 노바’, 르네상스의 ‘아르스 노바’, 바로크의 ‘무지카 노바’, 고전주의의 ‘새로운 음악’, 낭만주의의 ‘새로운 방향’

7) Ulrich Michels, 홍정수/조선우 편역, 음악은이, p.487

8) 이석원, 현대음악 - 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4

2) 역사적 흐름과 작곡 기법⁹⁾

가. 역사적 흐름

① 1890~1910 : 전통적 낭만주의에서 벗어나 음악 양식에 있어서 점차 새로운 20세기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프랑스의 음악적 인상주의와 독일어권의 후기 낭만적 경향이 주를 이루며,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

② 1910~1920 : 진정한 20세기의 시작으로 쇤베르크 악파의 무조음악과 스트라빈스키의 자유로운 리듬에 의한 발레음악, 버르토크의 민속적 음악을 토대로 한 현대음악의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③ 1920~1930 : 제 1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음악 경향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되는 시기이다. 신음악 1세대 작곡자들의 급격한 양식 변화가 특징인데,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등장하고, 스트라빈스키는 신고전주의 음악 양식을 완성한다. 힌데미트, 바일, 아이슬러, 크세네크 등 예술음악의 전통을 거부하는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실용음악이 등장하였다.

④ 1930~1945 :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경제 공황과 소련 스탈린 체제의 예술 억압정책, 나치즘의 대두는 새로움의 추구 대신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 장려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나치즘 대두 후 많은 작곡가들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⑤ 1945~1975 :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 이후 다름슈타트를 중심으로 20세기 음악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이다. 1950~60년대에는 총렬주의 음악, 전자 음악, 컴퓨터 음악, 우연성 음악, 음향(음색) 음악 등

9) 본 연구에서 ‘20세기 음악의 역사적 흐름과 작곡 기법’은 홍정수 · 김미옥 · 오희숙(2006)의 <개정판 두길 서양음악사 2>, 나남, p.346~613의 내용을 요약 · 발췌하였다.

이 번성하는 시기이다.

⑥ 1975~현재 : 다양한 음악 경향이 공존하는 시기로 음악의 주관성과 내면성에 관심을 가지며,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니멀 음악, 신낭만주의, 신조성주의, 인용음악, 크로스오버, 아방가르드 음악 등이 대표적이다.

나. 작곡 기법

① 인상주의 : 세기의 전환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미술과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드뷔시, 라벨 등이 대표적이다. ‘인상주의’는 명백한 형태보다는 색채와 분위기의 인상을 중시한 미술 경향으로 빛과 그림자의 뉘앙스에 주목했고, 이러한 특성은 드뷔시 음악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상징주의 문학에서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보다 언어의 뉘앙스를 중시하는 음악적 어법으로 나타나 드뷔시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드뷔시는 독일 낭만주의의 경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개척한 것으로 현대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애매한 조성과 유동적이면서 반복되는 분위기 있는 선율, 짧고 자유로운 순환적 형식, 다양한 음악적 색채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라벨의 <블레로> 등이 있다.

② 무조음악과 표현주의 : 20세기 초 전통적 장·단조 조성 체계가 무너지고 무조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불협화음의 해방을 주장한 쇤베르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는 한다. 무조음악이란 조성적 중심이 없고, 12음이 음악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는 음악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능화성학이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쇤베르크의 <세 개의 피아노 소품>과 <달에 홀린 피에로>가 대표적 무조음악이며, 미학적 토대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20세기 초반의 예술 사조인 ‘표현주의’이다. 쇤베르크는 특히 무조음악의 창작에 있어서 내면적 주관성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③ 12음 기법 :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시기 이후 긴 공백기를 가진 후 나타난 것으로 무조 음악의 논리적 귀결로 본다. 12음 기법이란, 12개의 음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기본 음렬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생된 전위, 역행, 역행전위 음렬을 토대로 작곡하는 음악 양식이다. 하나의 기본 음렬은 48개의 음렬로 파생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등 제 2 비엔나악파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들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대표곡은 쇤베르크의 <바르샤바 생존자> 이다. 20세기 후반에는 12음 기법의 원리가 확대되어 총렬주의 음악으로 나타나게 된다.

④ 총렬주의 음악 : 1950년 대 유럽의 중심적 음악 경향으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다른 음악적 요소들에 확대 적용한 논리적 작곡 경향으로 베베른의 점묘음악과 메시앙의 모드 음악이 총렬 음악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곡으로 블레즈의 <구조>, 슈톡하우젠의 <크로아츠슈필>, <피아노 작품 I-IV> 가 있다. 총렬 음악은 이후, 연주 및 청취, 작곡 기법 자체의 문제 등으로 한계를 가지며 쇠퇴하였다.

⑤ 원시주의 : 전통적 음악 양식에 강렬하고 격렬한 리듬과 자극적인 관현악법을 더하여 새로운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 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불새>, <페트로슈카> 등이 있다.

⑥ 신고전주의 : 새로움을 추구하는 20세기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에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새로운 고전’이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 넓은 의미로는 ‘옛 양식에 대한 재관심’을 뜻한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낭만시대 이전의 양식을 접목하여 조성, 대위법, 푸가, 모음곡, 콘체르토, 시몬니아, 소나타 등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디 기법이 나타난다. 반낭만주의, 주관적·내면적 표현, 형이상학적 미학관의 거부, 고전주의적 절대 미학을 추구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6인조는 1920년대의 새로운 양식과 미학관을 바탕으로 신고전주의 경향을 선보였고,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마브라>, 힌데미트의 <실내음악>, 프로코피에프의 <고전교향곡>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⑦ 우연성 음악 : 불확정성 음악이라고도 칭하며, 우연성을 음악에 도입한 경향이다. 케이지는 창작 과정에서 우연성을 도입하였고, ‘주사위, 우연’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차용된 ‘알레아’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연주과정에도 우연성을 도입하였다. 작곡가가 주관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엄밀하게 기보하는 전통적 작품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즉 악기나 음향 또는 음의 높이나 강약을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만들지 않고 작품을 연주할 때도 연주의 순서나 방법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다. 케이지는 아방가르드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그의 독특한 실험 정신을 새로운 여러 가지 음악 유형을 탄생시켰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고정된 표현 양식을 거부하며, 일상의 다양한 환경을 시청각적으로 음악에 수용하였다. 케이지의 <4분 33초>, <주역음악>, <헤프닝>, 슈톡하우젠의 <리에종>등이 대표곡이다.

⑧ 전자 음악과 컴퓨터 음악 :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매체(녹음기, 신디사이저, 컴퓨터 등)가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음악 경향이 나타났다. 전통 악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는 작곡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초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음향을 녹음, 편집하여 만든 음악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음악’이라 부른다. ‘구체음악’은 쉘퍼, 앙리, 크세나키스, 블레즈 등이 시도하였고, 대표적 작품으로 쉘퍼의 <5개의 연습곡>과 앙리의 <안티포네> 등이 있다. 전자음악은 전자적 수단으로 만들어낸 소리로 합성된 음악을 뜻하며 독일의 쾰른 방송국 전자

음악 스튜디오에서 슈톡하우젠이 시작하였다. 슈톡하우젠의 경우, 순수하게 전자음악 만을 활용한 <습작>과 전자 음향과 일반 음향을 결합하여 만든 <소년의 노래> 형태가 있다. 또 전자 음악과 실제 연주를 결합한 경우로 라이브 전자음악이라 불리는 슈톡하우젠의 <접촉>, 노노의 <블려진 공장>등의 작품이 있다. 컴퓨터 음악은, 전자 악기 간에 통할 수 있는 통로의 수단체제인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의 개발로 활성화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작곡에 활용되었다.

⑨ 음향음악(음색음악) : 196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으로 리게티, 펜데레츠키, 윤이상 등이 주도하였다. 음을 개별적 요소로 다루지 않고 음향층의 흐름을 중시하며, 새로운 연주기법을 개발하였다. 리게티는 개별 선율을 촘촘하게 겹치면서 거대한 음향층을 형성하는 <아트모르페르>라는 곡을 작곡하였고, 펜데레츠키는 다양한 클러스터 기법과 글리산도 기법을 통해 새로운 음색을 중시한 곡으로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를 작곡하였다. 윤이상은 한국 전통 음악의 영향을 받은 중심음 법칙으로 음향음악을 시도하였고, <가사>와 <예악> 등의 곡을 남겼다.

⑩ 미니멀 음악 : 미니멀 음악은 최소한의 재료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만드는 미니멀리즘 미술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으며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재료의 효과가 강조되어 반복 기법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영, 라일리, 라이히, 글래스 등이 있고, 극적 발전에 근거한 형식 구조를 거부하고, 반복과 순환을 통한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였다. 대표곡으로 라이히의 <Music for pieces of wood>가 있다.

⑪ 신낭만주의와 신조성주의 : 1970년대 이후 작곡가들은 청중과의 소통에 관심을 갖고 새로움의 추구에 열중한 아방가르드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조성을 다시 사용하고, 전통형식에 의한 작품을 쓰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펜데레츠키는 1976년에 발표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전환점으로 전통적 낭만세계로 돌입하였고, 록버그는 초기의 음렬주의에서 선회하여 낭만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조성적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⑫ 인용음악 : 이미 존재하는 음악 작품의 부분을 인용하여 만든 음악으로 1970년대부터 많은 작곡가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는 인용되는 방식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기존의 재료를 변화시켜 인용하는 ‘콜라주’ 기법, 기존의 재료를 변형하지 않고 직접 인용하는 ‘인용-콜라주’, 그리고 그래픽 또는 그림을 인용하는 ‘악보-콜라주’ 기법이 대표적이다. 슈니트케의 <교향곡 제 1번>과 <현악 4중주>는 베토벤과 현대 러시아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크럼은 기존의 짧은 음악적 요소를 자유롭게 합성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인용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짐머만, 슈톡하우젠, 카겔, 라헨만, 케이지, 슈네벨 등의 많은 작곡가로부터 시도되었다.

이 밖에도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난 오페라 장르를 비롯하여 무대 위의 새로운 시도으로써 시각 예술과 음악 장르가 합쳐지고, 관객이 작품의 과정에 참여하는 작품이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성과 인성교육,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강조하여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음악과의 경우, 음악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활화를 중요시하였고, 음악 교육의 기본 목표 외에도 음악의 다양성과 기능성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는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는 종전의 이해 영역이 감상 영역에 포함된 것이 새로운 특징이다. 즉 내용 체계에 있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이해-생활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감상-생활화’로 대영역이 구분되었고, 감상 영역의 세부 항목에 ‘이해’를 포함시키고 있다. 감상 외 가창, 기악, 창작 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에 포함되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체계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내용의 영역과 체계¹⁰⁾

영역	내용 체계
표현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감상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0) 2009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5

특히 감상 영역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악곡의 특징을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¹¹⁾

성취 기준	학습 활동 예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대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¹²⁾라고 교수 학습 방법의 세부 항목에 제시하여 음악사에서 20세기 음악을 지도할 때에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지도에 명시된 사항 중 하나는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¹³⁾이다. 20세기 음악에서는 다양한 작곡 기법을 특징으로 하여 전자 매체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음악이나 그래프나 그림 악보 등의 기보 형태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영상 매체를 통하여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21

12), 13) 상계서, p.9

3. 선행 연구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에 대한 구성과 내용을 분석·제언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20세기 음악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서 자체의 분석보다는 학습지도안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을 조사한 후 그것을 지도안의 개발에 연결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관련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안보다는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수록된 악곡의 현황을 조사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 중 4가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하나(2013)¹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세기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에서 교육 현장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이 지도의 중심이 되는 원인을 현대 음악에 대한 수업 방법 연구와 학습 자료의 부족이라고 보고, 현대 음악 교육의 중요성과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 설계와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3종을 대상으로 하여 감상 영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대음악의 비중이 여전히 적으며 그 내용과 수업 활동의 제시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현대음악은 이해와 감상 활동 중심으로 음악사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에 맞게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 내용은 보다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체재곡은 각 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어야 하고, 학습 활동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듬 형태가 바람직하

14) 김하나(2013),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세기음악 감상수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며, 정리 및 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한 것을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음악의 다양성과 독창성으로 인해 현대 음악 교육에서 가창과 기악보다는 감상과 창작을 통한 수업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지도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도법에서 현대 음악이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논의가 단지 수업 제재곡의 선정과 수업 설계의 일부분에만 반영되어 한계를 가진다.

강은혜(2011)¹⁵⁾는 ‘1945년 이후 현대음악에 관한 지도방안’에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945년 이후에 작곡된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을 통해 현대음악의 개념과 특징,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음악 관련 부분을 분석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 후, 그 문제점을 토대로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도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지도안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방법에 있어서 흥미와 실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이론적인 이해와 음악적 분석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도안 안에 풍부한 음악적 배경과 작곡가에 대한 이해, 악곡의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교사가 수업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15) 강은혜(2011), 1945년 이후 현대음악에 관한 지도방안-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판단된다.

이봉주(2000)¹⁶⁾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음악의 현황 조사 연구’에서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현대음악의 정의 부분과 감상곡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내용, 편집, 문장, 용어와 표현으로 구분하였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 교과서의 현대음악에 대한 비중이 지금보다 적었던 때에 이루어진 만큼,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제재곡의 선택 기준과 내용에 있어서의 객관성 유무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현 교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교과서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러나 저자는 8종 교과서의 내용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작곡가 이름의 표기와 음악사에서의 시대 구분이 일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름의 표기가 다른 경우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만 음악사의 시대 구분이 모든 교과서에서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학자에 따라 판단 기준과 의견이 다른 점은 존중되어야하므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허정윤(2013)¹⁷⁾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분석 및 제언’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통합교과서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통합교과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학년별’에서 ‘학

16) 이봉주(2000),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음악의 현황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7) 허정윤(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분석 및 제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년군'으로 통합된 '중학교 내용체계'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통합하여 편찬된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통합교과서의 변화된 방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차례 구성에 따른 수업 구성, 교과서에서의 활동 영역의 유형 구분, 창작 영역의 빈도 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 형태인 '통합 교과서'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음악 교육의 현장에서의 적용에 필요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과정 체계나 교과서 구성의 분포 등 형식 위주의 분석이므로 음악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적 측면은 다루고 있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위의 논문들은 연구의 초기 방향 설정부터 교과서 분석의 목적과 기준 설정 등의 연구 과정까지 많은 시사점을 주었으며, 여러 형태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또한 2013년에 새롭게 편찬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의 전체적인 이해에서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더 멀리는 6차 교육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에 편찬된 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과 현 교과서에 담긴 20세기 음악의 구성과 내용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현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가 출간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20세기 음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될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17종을 바탕으로 하였다. 각 교과서의 출판사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17종

출판사명	저자
경기도 교육청	윤용재, 손철수, 남기홍, 지종문, 김태은, 이요한, 구정미, 정원경, 이주상, 김백희, 홍미리
교학사	강민선, 양은주, 한태동, 김선희, 류주옥
(주)교학사	이홍수, 민경훈, 고영신, 유명국, 김일영, 윤해린
(주)금성출판사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오누리
두산 동아	최은식, 김대원, 박현숙, 권혜근, 강선영, 김주연, 하명진
(주)미래엔	장기범, 임원수, 홍종건, 윤성원, 김경태
(주)박영사	주광식, 채은영, 김주경, 최은아
비상교육	홍미희, 김종건, 이동희, 이승윤, 정미, 허유미
성안당	정옥희, 실창환, 이희중, 유대안, 이정원, 최청와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주)와이비엠	김미숙, 김혜선, 권혜인, 허수연
음악과 생활	양종모, 신현남, 김한순, 독고현, 황은주
(주)지학사	정길선, 황병숙, 유건석, 강세연, 박경준, 엄숙용

천재교과서	윤명원, 윤경미, 조성기, 이지혜, 최문희
천재교육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
태성	주대창, 홍진표, 노혜정, 김동수
현대음악	장보윤, 곽은순, 곽성원

교과서 내용 연구의 범위는 서양의 20세기 음악의 감상곡에 해당되는 악곡과 20세기의 음악사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세기 음악의 시대적 구분은 여러 문헌과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1890년경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또한 20세기에 작곡된 음악이라 하더라도 표현 기법이나 음악 양식 면에서 20세기 음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않은 음악은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¹⁸⁾

20세기 악곡의 비교 분석에서 악곡 선정은 17종의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악곡 3곡-목신의 오후 전주곡(10회), 봄의 제전(9회), 달에 흘린 피에로(8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와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교과서와 문헌을 토대로 분류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의 20세기 음악을 각 유형별로 분석할 때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모든 감상곡을 음악사와 연계되어 제시된 악곡과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으로 구분하고, 그

18) 예시 - 벤자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푸치니, <투란도트>

것을 각각 시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대별 음악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세기 음악을 모두 수집하였다. 다음 <표-4>는 그 기준에 따른 내용과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4> 17종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감상곡의 분석 기준

분석 대상	분석 기준	시대 구분	분석 목적
감상곡 (전체)	시 대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	1. 교과서의 시대별 감상곡 분류 2. 20세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파악 3. 20세기 음악에 해당하는 악곡 수집

둘째, <표-4>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20세기 감상곡을 다시 빈도수, 작곡가, 장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내용과 목적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17종 교과서에 제시된 20세기 감상곡의 분석 기준

분석 대상	분석 기준	내용과 목적	
20세기 감상곡	빈 도 수	악곡 별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 파악	
	작 곡 가	작곡가 별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 파악	
	장 르		장르별 악곡의 분포도 파악
			-장르 구분- 연주 형태에 따른 분류 기악 - 독주, 실내악, 관현악 합주, 관현악 협주 등 성악 - 가곡, 칸타타 등 기타 - 전자음악, 불확정적 장르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17종의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3곡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랐다.

첫째, 교과서별 제재곡의 학습 목표를 수집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그리고 활동에 의하여 학습 목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둘째, 학습 목표 유형에 따라 제시된 활동을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고 연계된 활동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영역의 구분은 다음 <표-6>과 같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에 해당되는 영역은 ‘표현’과 ‘감상’으로 나타나 두 영역이 분석의 기준이 되었다.

<표-6> 영역별 분석 기준 - 구분과 내용

영역 ¹⁹⁾	내용
표현	가창, 기악, 창작 표현
	악곡의 특징(음악요소 및 개념)을 살려 표현하기
감상	악곡의 특징을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감상하기
	음악을 듣고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셋째, 교과서별 제재곡의 내용 중 작곡가 설명 부분, 시대적 배경의 언급 유무, 첨부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의 제시 형태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세단계로 진행된 교과서별 악곡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논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1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체계’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IV.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

1. 교과서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은 대부분 서양음악사와 감상 활동의 두 파트에 제시되었으므로, 두 파트에 포함된 모든 악곡을 모두 조사한 후 각각 시대별로 분류하였다.

시대의 구분은 ‘고대-중세-르네상스-바로크-고전-낭만-국민악파(또는 민족음악, 민족주의)-20세기(또는 근·현대)’의 형태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동일하였으며, 고대와 중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제시하거나 고대는 제외하고 중세부터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악파는 ‘민족주의 음악’ 또는 ‘국민악파’의 명칭으로 따로 제시된 교과서가 많았지만, 「(주)지학사」 교과서에서는 국민악파를 낭만주의(1820~1900)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세기 음악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는 ‘근·현대음악’ 또는 ‘현대음악’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1)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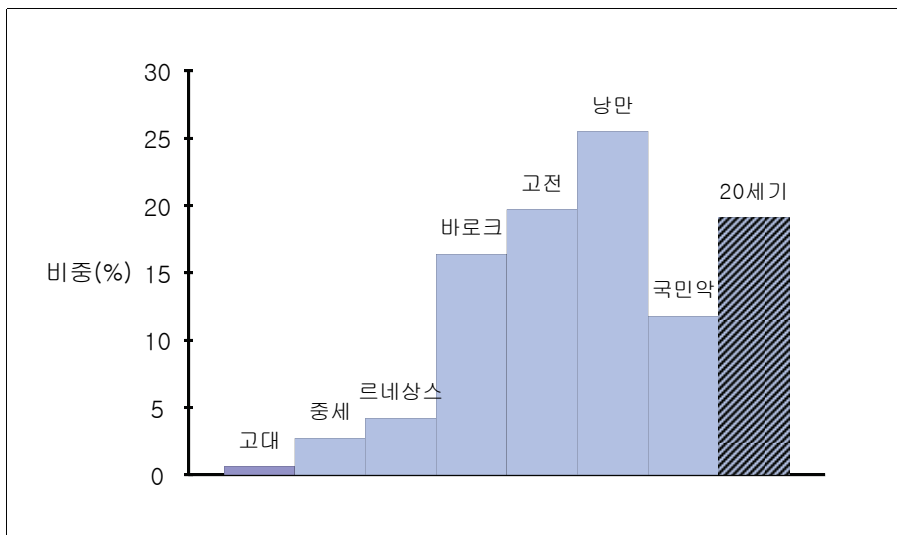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감상 영역 안에 음악사의 이해 영역이 포함되었다. 그 영향으로 17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음악사를 감상 활동과 연계하여 실음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두드러진다.

17종의 교과서에서 음악사와 연계되어 감상할 수 있는 악곡을 모두 조

사한 결과 감상곡의 활동 빈도는 총 330회로 나타났다. 그 중 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은 낭만주의(25%)에서 가장 많이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20세기 음악(19%)은 고전주의(20%)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 현황을 아래의 <표-7>에 정리하였고, <표-7>을 다시 그래프로 나타냈다. 각 시대별 분포는 <부록-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7>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	합계
곡 빈도	2	9	14	54	65	84	39	63	330
비율	1%	3%	4%	16%	20%	25%	12%	19%	100%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그래프>

이봉주(2000)²⁰⁾의 연구에 의하면 제 6차 교육과정²¹⁾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은 전학년을 통털어 12.9%의 비율로 수록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로 20세기 음악이 과거에 비해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8>은 교과서 별로 알아본 20세기 음악의 비율이다. 20세기 음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주)미래엔」(33%)과 「천재교과서」(33%)이고, 「성안당」(28%)과 「(주)와이비엠」(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미래엔」 교과서에서는 20세기 음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체 감상곡 6곡 중 20세기 악곡은 2곡으로 곡수는 낮게 나타났다. 20세기 음악의 곡수로는 「음악과 생활」과 「세광음악출판사」 교과서가 각각 8곡, 6곡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8> 교과서 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경기도 교육청	교학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태성	현대음악	합계
전체 곡수	19	9	14	18	20	6	28	17	18	34	19	35	13	15	18	15	32	330
20세기 곡수	1	1	3	4	2	2	5	3	5	6	5	8	3	5	4	2	4	63
20세기 비율	5%	11%	21%	22%	10%	33%	18%	18%	28%	18%	26%	23%	23%	33%	22%	13%	13%	19%

20) 이봉주(2000),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음악의 현황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7

21) 제 6차 교육과정은 중학교의 경우 1992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로 고시하여 1995년 3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시행되었다.

2)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서양음악사와는 별개로 음악 요소²²⁾, 형식과 장르 그리고 작곡 기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형태이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의 영역을 ‘감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감상곡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기악 활동, 감상곡의 형식과 장르 또는 작곡기법의 모방을 통하여 이해를 도운 창작 활동 등을 모두 ‘감상’ 활동에 포함하였다.²³⁾ 이러한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을 모두 조사한 후, 각 교과서별로 정리한 시대별 분포는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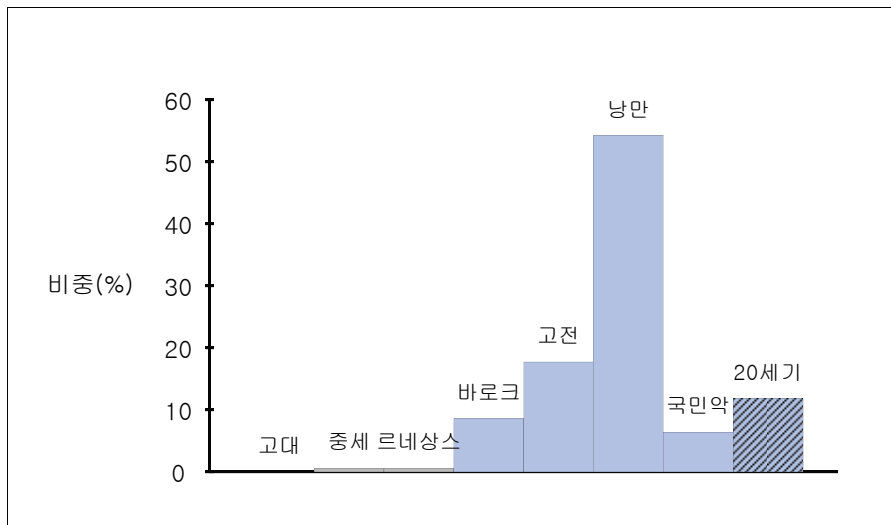
음악사와는 별개로 음악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모든 감상곡을 시대별로 분류한 결과, 20세기 음악의 비율이 전체 중 12%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고대에서는 한 곡도 제시되지 않았고, 중세와 르네상스에서는 「두산동아」 교과서에서 각각 1곡 씩 수록되었다. 이에 비해 낭만(54%)에서는 절반이 넘는 비율로 음악 요소와 개념의 이해를 위한 효율적 측면이 반영되어 낭만주의의 악곡을 교과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현황을 아래의 <표-9>와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

<표-9>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	합계
곡빈도	0	1	1	16	33	101	12	22	186
비율	0%	0.5%	0.5%	9%	18%	54%	6%	12%	100%

2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를 규정하여 ‘리듬-가락-화성-형식-셈여림-빠르기-음색’의 7가지 음악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23) 예시-라벨의 <볼레로>를 편곡된 악보로 합주하기, 케이지의 <4분 33초>를 직접 실현해보기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그래프>

다음은 서양음악사와 연계 없이 감상 활동만으로 제시된 20세기 음악의 비율을 교과서별로 분석하였다.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20세기 음악의 비율은 「(주)와이비엠」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셈여림, 리듬, 음색 등의 음악 요소와 현대적인 작곡 기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20세기 음악이 폭넓게 활용되었다. 곡수에서는 「(주)와이비엠」과 「(주)박영사」 교과서가 각각 6곡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의 교과서에서는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경우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에 비해 20세기 음악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다. 특히 「음악과 생활」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상 감상곡이 모두 음악사와 연계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그 밖의 감상 활동에서는 한 곡도 제시되지 않았고, 서양음악사 부분에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보다 많은 감상곡을 신고 있음을 앞의 ‘서양음악사와 연계되어 제시된 악곡 분포’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표-10>은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10> 20세기 음악의 비율 -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경기도 교육청	교 학 사	(주) 교 학 사	(주) 금 성 출 판 사	두 산 동 아	(주) 미 래 엔	(주) 박 영 사	비 상 교 육	성 안 당	세 광 음 악 출 판 사	(주) 와 이 비 엠펜	음 악 과 생 활	(주) 지 학 사	천 재 교 과 서	천 재 교 육	태 성	현 대 음 악	합 계
전체 곡수	8	3	4	5	17	21	36	13	1	1	12	0	6	3	7	30	19	186
20세기 곡수	1	0	0	0	0	3	6	0	0	0	6	0	0	0	0	3	3	22
20세기 비율	13%	0%	0%	0%	0%	14%	17%	0%	0%	0%	50%	0%	0%	0%	0%	10%	16%	12%

2.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의 유형별 분석

1) 빈도수 분석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을 빈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같은 악곡이지만 교과서마다 제목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따로 제시하였다. 또한 감상 악곡이 모음 형태로 이루어져 작은 제목이 다른 경우, 각각 따로 분류하지 않고 큰 제목만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3부 21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 <달에 홀린 피에로>의 경우 교과서마다 감상곡목이 달랐지만, 큰 제목인 <달에 홀린 피에로>로 통일하였다.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 악곡의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11>은 2회 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모두 15곡이 포함되었다. <표-12>는 교과서에 단 1회만 수록된 곡을 제시한 것으로 모두 21곡이다. 이로써 17종의 음악 통합 교과서에서 제시된 20세기 음악은 모두 35곡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수록된 곡목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1894)>(10회),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1913)>(9회),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1912)>(8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벨의 <볼레로(1928)>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1924)>도 각각 7회씩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 최근의 20세기 음악보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음악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곡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별 수록 현황은 <부록-3>을 참고한다.

<표-11> 악곡별 교과서 수록 빈도수 (2회 이상)

작곡가	곡 명 (작곡연도)	빈도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1894)	10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1913)	9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1912)	8
라벨	볼레로 (1928)	7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1924)	7
케이지	4분 33초 (1952)	6
드뷔시	달빛 (1890)	5
리게티	아티클레이션(분절법)(1958)	4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1947)	3
홀스트	행성 (1917)	3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1935)	3
드뷔시	아라베스크 (1894)	2
드뷔시	바다 (1905)	2
슈톡하우젠	습작II(전자연습곡 2번)(1953)	2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 (1956)	2

<표-12> 교과서에 1회만 수록된 곡목

작곡가	곡 명 (작곡연도)
드뷔시	세 개의 야상곡 (1899)
쾨베르크	정화된 밤 (1899)
	현악 4중주 (1897)
	3개의 피아노 소품 (1909)
스트라빈스키	페트르슈카 (1911)
오네거	퍼시픽231 (1923)
카웰	호랑이 (1928)
그로페	그랜드 캐니언 모음곡 (1931)
바레즈	아이오나이제이션 (1931)
버르토크	헝가리안 풍경 모음곡 중 <시골의 저녁>(1931)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1936)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1950)
크세나키스	메타스시스 (1955)
케이지	윌리엄스 믹스 (1952)
	폰타나 믹스 (1958)
브라운	December 1952 (1952)
펜데레츠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1960)
윤이상	가사(1963)
슈톡하우젠	접촉 (1960)
프랑세	대략 즉흥적으로 (1978)
슈타이너	솔리튜데 (2001)

2) 작곡가별 분포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악곡을 작곡가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13> 17종 교과서의 20세기 작곡가 별 악곡 현황

작곡가	곡 수록 횟수	곡목수	작곡가
드뷔시	20	5	오네거
쾨베르크	14	5	카웰
스트라빈스키	10	2	그로페
케이지	8	3	바레즈
라벨	7	1	메시앙
거슈인	7	1	크세나키스
슈톡하우젠	5	3	브라운
리게티	4	1	펜데레츠키
오르프	3	1	윤이상
홀스트	3	1	프랑세
버르토크	2	2	슈타이너

<곡 수록이 2회 이상인 작곡가>

<1회만 수록된 작곡가>

위의 <표-13>과 <부록-3>을 참고하면, 교학사와 미래엔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드뷔시의 음악이 20회 수록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쾨베르크(14회), 스트라빈스키(10회), 케이지(8회)의 순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교과서에 1회만 수록된 작곡가의 경우,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곡가도 일부 포함되었고, 학습

내용 상 작곡가보다는 작품에 초점을 두고 수록된 곡 위주였다.

다음은 교과서별로 수록된 20세기 작곡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14>에서와 같이, 태성 교과서에서 14명의 작곡가 작품이 소개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주)와이비엠(10명), (주)박영사(8명)가 그 다음 차례로 나타났다. 태성 교과서에서는 20세기 작곡가와 그 작품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한국의 작곡가인 윤이상의 곡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별 수록된 작곡가와 곡수의 자세한 분포도는 <부록-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4> 각 교과서별 수록된 20세기 작곡가 현황

출판사	작곡가 수	작곡가명
태성	14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거슈인, 오르프, 오네거, 리게티, 윤이상, 프랑세, 슈타이너, 버르토크, 케이지, 슈톡하우젠, 펜데레츠키
(주)와이비엠	10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카웰, 케이지, 거슈인, 홀스트, 버르토크, 메시앙
(주)박영사	8	드뷔시, 쇤베르크, 케이지, 거슈인, 슈톡하우젠, 리게티, 그로페, 바레즈
성안당	6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거슈인, 브라운, 크세나키스
세광음악출판사	6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거슈인, 오르프
현대음악	6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거슈인, 홀스트
음악과생활	5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거슈인, 오르프
천재교과서	5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슈톡하우젠
(주)금성출판사	4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리게티
천재교육	4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교학사	3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리게티
미래엔	3	라벨, 슈톡하우젠, 홀스트
비상교육	3	드뷔시, 쇤베르크, 케이지
㈜지학사	3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경기도교육청	2	드뷔시, 라벨
두산동아	2	드뷔시, 쇤베르크
교학사	1	슈톡하우젠

3) 장르별 분석

17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을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누고, 다시 연주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기악곡은 22곡, 성악곡은 3곡으로 기악곡이 훨씬 높은 분포를 보여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이 작곡가와 그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악 장르로는 관현악 합주(12곡)가 많이 수록되었고, 성악 장르에서는 가곡과 칸타타가 포함되고 오페라가 빠져있었다. 기타 장르에는 전자음악(5곡)과 악기와 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우연성 음악(4곡)이 포함되었다.

관현악 합주에 포함된 곡은 20세기 음악의 특성 상 고전적 교향곡의 형식적 특징에서 벗어난 곡이 대부분이었다. 단악장이거나 여러 곡을 모아 놓은 형태와 표제적 성격을 띤 곡, 오케스트라의 구성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된 악기들과 새로운 배치 형태 그리고 실험적인 관현악법의 시도로 작곡가 특유의 음향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작곡된 곡에서 관현악곡의 타악기 비중이 커지면서 여

러 가지 타악기가 오케스트라에 편성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바레즈의 <아이오나이제이션>과 버르토크의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이 그 대표적 예이다.

다음 <표-15>에서 연주 형태에 따라 분류된 악곡을 확인할 수 있다.

<표-15> 연주 형태에 따른 악곡 분류

구분	연주 형태 (곡수)	곡 목
기악 (22)	독주 (5)	피아노 독주곡 : 드뷔시 <아라베스크>, <달빛> 쾨베르크 <3개의 피아노 소품> 카렐 <호랑이>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실내악 (4)	2중주 : 윤이상 <가사> 현악 4중주 : 쾨베르크 <현악 4중주> 현악 6중주 : 쾨베르크 <정화된 밤> 목관 5중주 : 프랑세 <대략 즉흥적으로>
	관현악 합주 (12)	관현악 :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바다> <3개의 야상곡> 라벨 <볼레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페트르슈카> 홀스트 <행성> 오네거 <퍼시픽 231> 그로페 <그랜드캐니언 모음곡> 현악 : 펜데레츠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타악 : 바레즈 <아이오나이제이션> 기타 : 버르토크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관현악 협주 (1)	피아노 협주곡 :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성악 (3)	가곡 (1)	연가곡 : 쾨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칸타타 (2)	쾨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기타 (9)	전자음악 (5)	리게티 <아티콜레이션> 슈톡하우젠 <전자연습곡 2번(습작 II)>, <접촉> 크세나키스 <메타스타시스> 슈타이너 <솔리튜데>
	불확정적 장르 (4)	케이지 - <4분 33초>, <윌리엄스 믹스>, <폰타나 믹스> 브라운 - <December 1952>

4. 교과서 제재곡의 내용 비교 분석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17종 중 10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10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근·현대 음악사를 소개하는 부분의 첫 번째 감상곡으로 수록되었다.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별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상 활동에 따른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학습 활동과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 목표를 A, B, C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10종 교과서에 제시된 <목신의 오후 전주곡> 학습 목표 유형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 A. 인상주의의 이해
- B. 근·현대 음악의 특징
- C.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 세계

유형 A는 20세기 음악 양식의 하나인 ‘인상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인상주의가 가지는 음악적 특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경기도 교육청」, 「성안당」, 「천재교육」 교과서가 이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목신의 전주곡> 감상 단원에서 인상주의 사조를 인상주의 미술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부제를 달아 인상주의 회화 2점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유형 B는 서양음악의 흐름을 중심으로 음악사에서 20세기 음악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20세기 음악의 여러 사조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인상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음악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20세기 음악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인상주의를 소개하며 <목신의 전주곡>을 감상 활동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10종 중 절반인 5종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 유형이다.

유형 C는 작곡가 드뷔시에 초점을 맞춘 학습 목표로서 드뷔시의 업적과 작품, 작곡 기법과 음악적 특징 등의 학습 내용 제시를 특징으로 한 것으로 「음악과 생활」과 「천재교육」 교과서의 2종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음악과 생활」에서는 드뷔시 음악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목신의 전주곡> 이외에도 드뷔시의 다른 작품인 <아라베스크>, <바다>를 함께 감상하도록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17>은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이와 같은 학습 내용을 근거로 학습 목표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17 >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출판사	학습 목표	유형	
경기도 교육청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하면서 곡의 분위기를 느껴 보자.	A	인상주의
두산동아	근대 음악과 현대의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B	근· 현대음악
(주)박영사	인상주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A	인상주의
비상교육	근현대 음악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B	근· 현대음악
(주)와이비엠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며 감상할 수 있다.	A	인상주의
음악과생활	드뷔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C	드뷔시
성안당	인상주의 음악을 이해하고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을 감상한다.	A	인상주의
(주)지학사	근· 현대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B	근· 현대음악
천재교육	근대· 현대 음악의 대표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 보자.	C	드뷔시
현대음악	근대· 현대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여러 사조의 음악을 감상한다.	B	근· 현대음악

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목신의 전주곡>은 모두 ‘감상’ 영역 활동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10종의 교과서에서 <목신의 전주곡>을 인상주의의 대표곡으로 선정하여 음악

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학습 요소로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영역에 ‘음악 요소와 개념의 이해’와 ‘음악사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감상과 이해가 연계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목신의 전주곡> 부분에서는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으로 다루어져 음악사의 이해 측면에 충실하다보니, 감상 영역 이외의 가창, 기악, 창작과 연계된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 비교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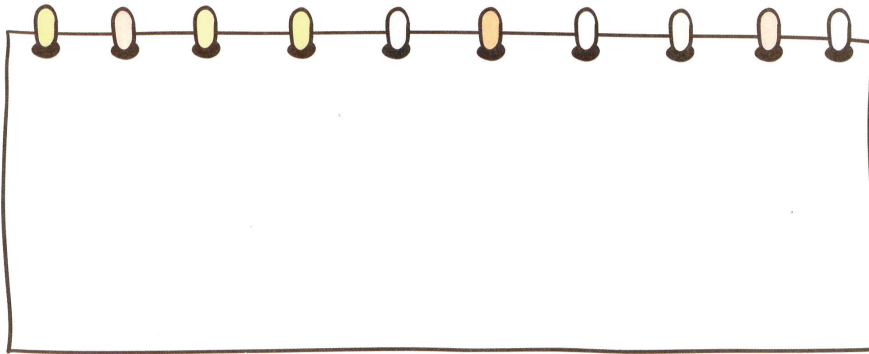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²⁴⁾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경기도 교육청	A (인상주의)	감상 (음악사)	X	미술
두산동아	B (근·현대음악)		X	X
(주)박영사	A (인상주의)		X	미술, 문학
비상교육	B (근·현대음악)		X	X
(주)와이비엠	A (인상주의)		X	미술
음악과 생활	C (드뷔시)		X	X
성안당	A (인상주의)		X	문학
(주)지학사	B (근·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 (드뷔시)		X	X
현대음악	B (근·현대음악)		X	X

24)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체계인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음악사, 감상)’, ‘생활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앞의 <표-18>에서 살펴보면, 학습 목표 유형이 인상주의에 초점은 둔 A유형인 경우에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 교과서에서는 <목신의 전주곡>을 감상하면서 인상주의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을 학습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림-1>과 같이 감상 활동 후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미술 과목과의 연계 활동으로 학습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적이다.

(창의지식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이 곡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TIP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빛과 그림자, 색채를 중시하는 회화의 화풍에서 비롯되었다. 인상주의 음악은 자연에 대한 섬세한 변화를 색채감과 분위기를 중시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향시 '바다' 등이 있다.

<그림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1)

- 「경기도 교육청」 p.213

「(주)박영사」와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말라르메의 상징시에서 영향을 받은 점을 들어 그 시에 나타나는 목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더 나아가 「(주)박영사」 교과서에서는 모네의 회화와 관련지어 드뷔시가 인상주의 미술을 음악에 적용하였다고 서술하면서 각각 문학, 미술과 연계하여 악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록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2>는 「성안당」 교과서에 제시된 것으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 의해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임을 설명하면서 감상 활동으로 플루트 선율과 시의 줄거리 간의 연관성을 의도하고 있다.

이 곡은 인상주의를 분명하게 한 작품으로 드뷔시의 걸작이다. 처음에는 말라르메(Mallarmé, stephane 1842~1898)의 시 ‘목신의 오후’에 의한 3부작(전주곡, 간주곡, 종곡)의 관현악을 계획했으나 전주곡만 완성하였다. 자유로운 세도막 형식으로 세 개의 주제 선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있다.

제1주제 무반주의 플루트가 목신이 부는 풀피리를 모방한 환상적인 제1주제의 선율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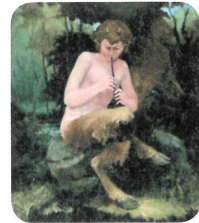
4 감상하기

첫 시작 부분의 플루트 선율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자.

악사 미관 **‘목신의 오후’ 줄거리**

피리를 부는 목신(牧神) ▶

머리와 몸은 사람이고 허리 아래는 짐승처럼 생긴 목신은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오후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때 전날 물의 요정들을 만났던 일이 떠오르는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었던지 환상이었던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얼마 후 환상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오후, 목신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림-2>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문학의 연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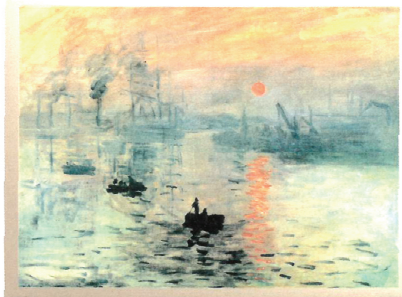
- 「성안당」 p.234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교과서가 미술에서의 표현 영역과 연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인상주의 회화인 모네의 <해돋이 인상>과 후기 인상주의 회화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함께 수록

하여 음악의 인상주의를 미술 감상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3>는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 그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음악과 미술은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에 대하여 작가가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예술가들은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19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음악과 미술의 만남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해돋이 인상(유채 / 50×65 cm / 1872년 작)
모네(Monet, Claude / 1840~1926 / 프랑스)
일출 풍경 그 자체보다는 일출 순간의 감흥적인 인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 인상주의 음악과 인상주의 미술

인상주의 음악은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색채를 그렸던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어떤 현상에서 느낀 인상을 감각적인 음색과 음향으로 표현하였다.



교향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 드뷔시 작곡



별이 빛나는 밤(유채 / 73.7×92.1cm / 1889년 작)
고흐(Gogh, Vincent Van / 1853~1890 / 네덜란드)
강렬한 색과 회오리치듯 꿈틀거리는 선으로 밤하늘의 별에서 느낀 인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3>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2)

- 「(주)와이비엠」 p.230

③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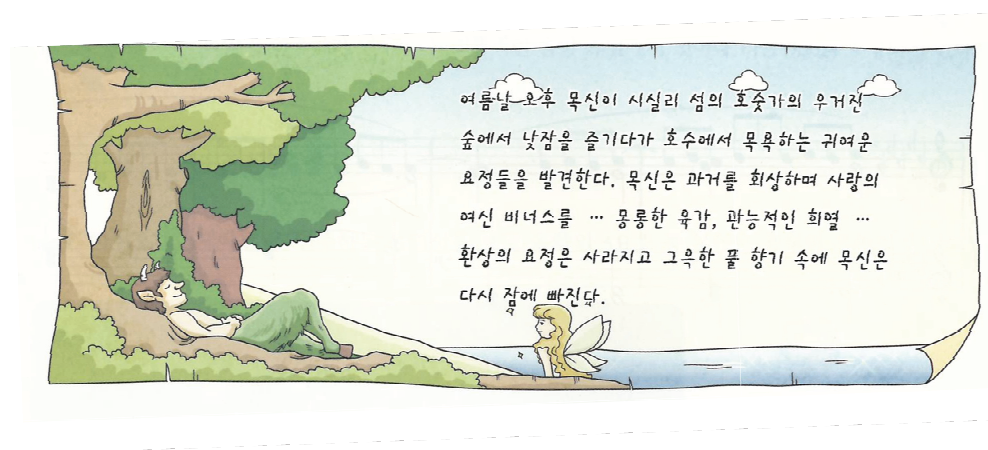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상 활동에 나타난 교과서별 구성과 그 형태를

살펴보면, 이 곡이 수록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음악의 시작 부분을 악보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주제 A와 주제 B를 따로 제시하여 주제 선율의 변화에 따른 음악의 형식적 특징에 접근하고, 주제에 따른 분위기의 전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과서에서는 각 주제를 악기의 음색에 유념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악보를 제시하였다.

<그림-4> 악보 <목신의 오후 전주곡> - 주제 A와 B의 제시
- 「두산동아」 p.211

<그림-5> 악보 <목신의 오후 전주곡> - 주제별 악기 제시
- 「경기도교육청」 p.213

음악 양식은 이 곡이 수록된 10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인상주의’로 표기하고 있으며, 인상주의의 특징을 음악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교과서의 지면에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과 사진의 구성 면에서는 작곡가 드뷔시의 사진과 모네의 <해돋이> 회화가 많았고, 드뷔시의 음악을 상징주의 문학과 연관지었던 「(주)박영사」 교과서의 경우 <그림-6>과 같이 목신의 이야기 삽화가 제시되었다.



<그림-6> 목신의 이야기 삽화 - 「(주)박영사」 p.213

「현대음악」 교과서에서는 시대적인 맥락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학습 목표와 교과서의 구성적 측면에서 의도하였으므로 <목신의 전주곡>이 발표되었던 당시의 포스터를 실어 그 시대의 현장감을 더하였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19>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19>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작곡가 설명	시대적 배경	양식 표기	악보	그림 사진
경기도 교육청	A	X	선수학습- 현대 음악 개관	인상 주의	시작 부분 (플루트 오보에 솔로)	X
두산동아	B	O	X	인상 주의	주제 A 주제 B	- 드뷔시 초상화
(주)박영사	A	O	문화적 배경	인상 주의	시작 부분 (플루트)	-모네 <해돋이> -목신 이야기 삽화
비상교육	B	O	19세기 ~20세기의 음악적 경향	인상 주의	시작 부분	모네 <해돋이>
(주)와이비엠	A	O (음악사 부분)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인상 주의	시작 부분	모네 <해돋이 인상>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음악과 생활	C	O	X	인상 주의	시작 부분	드뷔시 카툰
성안당	A	O	근현대음악 개관 인상주의의 등장	인상 주의	시작 부분 (플루트)	드뷔시 사진 회화<피리를 부는 목신>
(주)지학사	B	O	X	인상 주의	시작 부분	드뷔시 초상화
천재교육	C	O	근대·현대 음악 개관	인상 주의	시작 부분	드뷔시 사진
현대음악	B	O	근대·현대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인상 주의	시작 부분 (플루트)	1912년 <목신의 오후 전주곡> 공연 포스터

④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내용을 분석하여 제재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습 목표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수록된 10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제재곡을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중 4종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서 인상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 자체의 특징보다 ‘인상주의’라는 양식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드뷔시가 인상주의 회화에서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단정 짓는 내용이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미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²⁵⁾ 일반적으로 음악에서의 ‘인상주의’를 설명할 때 인상주의 회화와 함께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드뷔시는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인상주의 회화를 모방하여 작곡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⁶⁾ 또한 자신을 인상주의자라기 보다는 음악가로, 또는 합리적 자연주의에 반대하여 비합리성·분위기·상상력을 옹호한 문학가 친구들(보들레르·베를레느·말라르메²⁷⁾)처럼 상징주의자로 생각했다.²⁸⁾

따라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인상주의 미술과 연계하여 가르칠 때에는, 인상주의 회화와 드뷔시의 음악을 인상주의의 틀 안에서 하나로 일

25) 인상주의의 명칭은 모네의 그림<해 뜨는 인상 (Impression soleil levant, 1874, 파리 전람회, 세잔느·드가·르노아르 등도 참여)>으로부터 왔다.

- Ulrich Michels(1985), 홍정수/조선우 역(2005),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p.483

26)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48

27) Charles Baudelaire(1821~1867), Paul-Marie Verlaine(1844~1896), Stephane Mallarmé (1842~1898)

28) Ulrich Michels(1985), 홍정수/조선우 역(2005),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p.483

치시키는 접근보다 미술과 음악의 경향이 동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무게를 두고 각 예술 장르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또한 말라르메 시에 의하여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작곡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과서에 부분적이라도 제시하여 문학과 연계된 감상 활동을 하는 것이 작곡자의 의도에 가까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근·현대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와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 등이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0종의 교과서 모두 서양음악사 단원의 근·현대음악 파트에서 이 곡을 첫 곡으로 다루고 있지만 위의 사항들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음악적 특징 안에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라우트(1980)²⁹⁾는 인상주의가 일종의 표제음악이지만 대부분의 낭만주의적인 표제음악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야기를 말하려 하지 않고, 암시적인 표제와 자연의 음, 무용의 리듬, 선율의 특징적인 단편 등의 도움을 빌려서 하나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점, 둘째는 축소된 표현에 의존한다는 점, 셋째는 독일의 낭만파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음악 어법으로써 화성, 색채, 리듬 그리고 형식 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석원(1997)³⁰⁾은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시작 부분인 플룻 독주 주제가 최고음인 C#과 최저음인 G사이를 반음계적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림으로써 조성의 개념이 모호한 점, 불규칙한 리듬, 유동적인 빠르기, 불분명한 형식 등의 음악적 특징이 전통적인 서양음악의 기준을 무너뜨렸

29) D. J. Grout 저(1980)/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1991), 개정 3판 서양음악사(하), p.957~959

30)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56

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들은 음악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음악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어야 하고, 당시 유럽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를 적절히 추출하여 그 주제를 통한 창의적 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한 음악의 특징적 표현이 시대적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과제가 필요하다.

2)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교과서 17종 중 9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봄의 제전>의 교과서 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 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별 <봄의 제전> 감상 활동에 따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 활동과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 목표를 아래의 A, B, C 세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 내용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9종 교과서에 제시된 <봄의 제전> 학습 목표 유형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 A. 원시주의의 이해
- B. 근·현대음악의 특징
- C.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세계

유형 A는 20세기 음악 양식의 하나인 ‘원시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원시주의가 가지는 음악적 특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유형으로 교과서 9종 중 「성안당」, 「(주)와이비엠」, 「(주)지학사」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유형 B는 서양음악의 흐름을 중심으로 음악사에서 20세기 음악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20세기 음악의 여러 사조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원시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음악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20세기 음악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원시주의를 소개하며 <봄의 제전>을 감상 활동으로 제시한 것으로, 교과서 9종 중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세광음악출판사」, 「천재교과서」, 「현대음악」 교과서 5종이 이에 포함되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근·현대음악의 단원 안에서 20세기 음악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작곡가의 작품들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였으므로 유형 B로 구분하였다.

유형 C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라빈스키의 업적과 작품, 작곡 기법과 음악적 특징 등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천재교육」 교과서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다음 <표-21>은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이와

같은 학습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학습 목표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21> <봄의 제전>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출판사	학습 목표	유형	
(주)교학사	(제시 없음) 감상 제안- 풍성한 관현악 음향과 강하게 대비되는 음색, 강렬한 리듬과 액센트, 불협 화음 등의 특징들을 유의하며 들어 보자.	B	근· 현대음악
(주)금성출판사	20세기 음악 감상하기 20세기 음악의 특징 이해하기	B	근· 현대음악
성안당	원시주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A	원시주의
세광음악 출판사	근대·현대 음악의 특징,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감상해 보자.	B	원시주의
(주)와이비엠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며 감상할 수 있다.	A	원시주의
(주)지학사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A	원시주의
천재교과서	(제시 없음) 내용- 근· 현대 음악의 다양한 사조	B ³¹⁾	근· 현대음악
천재교육	근대· 현대 음악의 대표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 보자.	C	스트라빈스키
현대음악	근대· 현대 음악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여러 사조의 음악을 감상한다.	B ³²⁾	근· 현대음악

31), 33) 「천재교과서」와 「현대음악」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음악의 여러 사조를 제시하면서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작품인 <봄의 제전>을 '신고전주의'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 문에서는 두 교과서에 표기된 '신고전주의'를 '원시주의'로 바꾸어 해석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봄의 제전>은 9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음악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 영역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연계 활동으로는 회화와 더불어 감상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화나 발레 공연 사진을 교과서에 구성하여 음악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쥬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이 원시주의 양식임을 소개하면서 이 곡이 작곡될 당시의 미술 사조로써 원시주의와 맥락을 같이 했던 야수주의 회화와 비교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림-7>을 참고한다.

■ 원시주의 음악과 야수주의 미술

원시주의 음악은 순수하면서도 원시적인 자연과 생명력을 동경했다는 점에서 야수주의 미술과 연관된다. 미술 작품의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채 표현은 음악에서의 강렬한 리듬, 음색과 비교된다.

 발레 모음곡 '봄의 제전' — 스트라빈스키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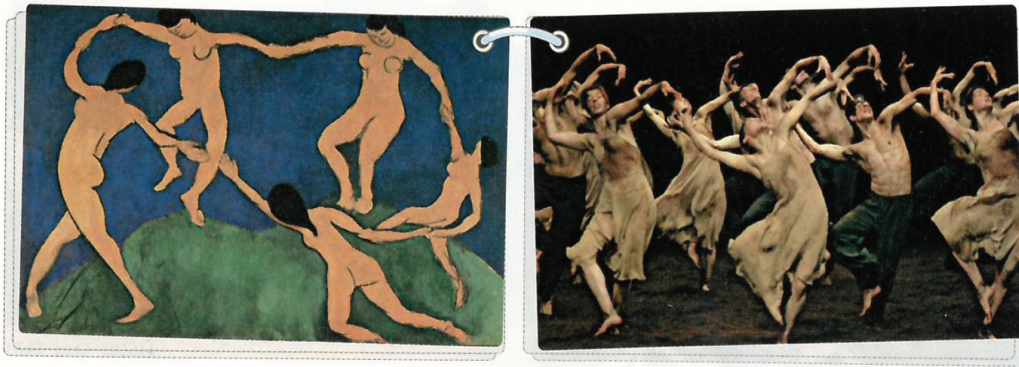


음악(유채 / 260×389 cm / 1910년 작)
 마티스(Matisse, Henri / 1869~1954 / 프랑스)
 강렬한 원색과 면, 선 등을 사용하여 음악에서의 가락과 리듬의 강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7> <봄의 제전>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 「쥬와이비엠」 p.231

「(주)지학사」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을 다른 예술과 더불어 감상하는 활동으로, <그림-8>에서와 같이, 마티스의 회화 <춤 속의 리듬과 색>과 발레 공연 <봄의 제전>을 제시하였다.

활동 1 마티스의 그림과 실제 발레 공연 사진을 보며, 음악을 감상해 보자.



<그림-8> <봄의 제전> 미술, 공연 예술(무용)과의 연계 활동
- 「(주)지학사」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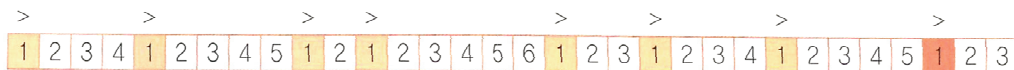
「(주)금성교과서」에서는 음악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 영역뿐만 아니라 <봄의 제전>을 구성하는 음악적 특징인 악센트에 의한 불규칙 리듬과 불협화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악 활동을 포함시켜 ‘표현’ 영역의 연계 활동이 제시되었다. 다음 <그림-9>에서와 같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음악 요소로써 불규칙 악센트, 변박자, 타악기의 음색을 강조한 편성을 설명하면서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활동으로 이끌고 있다.

○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중 '젊은이의 춤'

러시아 원시 민족의 종교 의식을 소재로 한 같은 제목의 발레 작품을 위한 무용 음악이다. 불규칙적인 악센트, 변박자, 타악기를 강조한 편성 등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이 든다.

원시주의 음악
후기 낭만파의 세련된 음악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원시적 음악이다. 원시 민족의 격렬한 리듬과 음색으로 연출한다.

감상 2. 앞부분에 등장하는 32개 화음의 악센트에 유의하며 감상해 보자.



표현 3. 두 모듬으로 나누어 불규칙한 악센트의 32박 리듬을 건반 악기로 연주하여 보자.



마디	1	2	3	4
리듬과 악센트	> ♪ ♪ ♪ ♪	> ♪ ♪ ♪ ♪	> ♪ ♪ ♪ ♪	> ♪ ♪ ♪ ♪
마디	5	6	7	8
리듬과 악센트	> ♪ ♪ ♪ ♪	> ♪ ♪ ♪ ♪	> ♪ ♪ ♪ ♪	> ♪ ♪ ♪ ♪



스트라빈스키(1882~1971)
Igor Stravinsky
· 러시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
· 원시주의,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의 음악을 시도
· 무용 모음곡 '볼셰',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등 작곡

활동 더하기

⊕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음악의 경향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

<그림-9> <봄의 제전>의 활동 내용 - 「(주)금성출판사」 p.155

이상 앞에서 살펴 본 <봄의 제전>에 나타난 활동을 분류하고 연계 활동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봄의 제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주)금성출판사	B(근·현대음악)	감상 (1. 음악사 2.음악요소-리듬, 셈여림)	표현(기악)	X
(주)교학사	B(근·현대음악)	감상 (음악사)	X	X
성안당	A(원시주의)		X	X
세광음악출판사	B(근·현대음악)		X	X
(주)와이비엠	A(원시주의)		X	미술
(주)지학사	A(원시주의)		X	미술·무용
천재교과서	B(근·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스트라빈스키)		X	X
현대음악	B(근·현대음악)		X	X

③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봄의 제전>은 발레음악으로서 제 1부 <대지에의 찬양>의 8곡과 제 2부 <희생>의 6곡으로 구성된 총 14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 형태이다. 몇몇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 전체가 아니라 소제목을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한 곡만 감상하도록 활동을 제시하였다.

감상 과제로 지정된 곡은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각 교과서에 표기된 형태를 그대로 따라 다음 <표-23>의 감상곡 현황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별로 <봄의 제전>의 음악적 특징과 원시주의 색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곡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다.

<표-23 > 교과서별 <봄의 제전> 감상곡 현황

교과서	감상곡
(주)교학사	봄의 제전 中 <선택된 처녀에의 찬미>
(주)금성출판사	봄의 제전 中 <젊은이의 춤>
성안당	봄의 제전 中 <희생의 춤>
세광음악출판사	봄의 제전
(주)와이비엠	봄의 제전
(주)지학사	봄의 제전
천재교과서	봄의 제전 中 <젊은 처녀들의 춤>
천재교육	봄의 제전 中 <젊은 남녀들의 춤>
현대음악	봄의 제전 中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

음악사와 관련하여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언급은 <봄의 제전>이 수록된 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대부분 20세기 음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그림-10>에서와 같이 학습 목표를 원시주의의 이해에 무게를 두어 원시주의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 함축적으로 서술하여 양식의 이해를 돕고 있다.

1 원시주의 음악

후기 낭만파의 지나치게 세련되고 부드러운 음악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원시주의 음악은 원시 민족의 강렬하고 격렬한 리듬과 음색을 사용하여 야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Stravinsky, Igor Fyodorovich 1882~1971, 러시아)를 들 수 있다.

<그림-10> <봄의 제전> 시대적 배경 - 원시주의의 등장 - 「성안당」 p.236

음악 양식은 모두 7종의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천재교과서」와 「현대음악」 교과서에서는 ‘원시주의’를 ‘신고전주의’로 잘못 칭하고 ‘신고전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작품 활동에서 <봄의 제전>은 원시주의 양식에 해당하므로, 교과서에서 ‘신고전주의’를 다루려고 의도했다면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적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폴치넬라>나 <시편교향곡>을 감상곡으로 다룰 수 있다..

악보의 제시 형태를 살펴보면, 「(주)지학사」 교과서에서는 <그림-11>에서와 같이 <봄의 제전>의 세부 구성을 악보로 제시하여 각 곡의 주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의 다른 버전인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 (<그림-12>참고)’으로 편곡된 악보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연주 형태의 감상이나 피아노 연주를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제1부 대지 예찬 “낮”(8곡)

제1곡 서곡

Lento $\text{♩} = 50$



제2곡 봄의 징조 - 젊은 남녀들의 춤

$\text{♩} = 56$

arco (non div.)



● 제2부 제물 “밤”(6곡)

제6곡 신성한 춤



<그림- 11> 악보 <봄의 제전> - 주요곡별 주제 제시
- 「(주)지학사」 p.121



※ 이 곡은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악보이다.

<그림-12> 악보 <봄의 제전> - 네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 악보
- 「성안당」 p.236

「(주)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앞의 <그림-9>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

보 대신에 <봄의 제전>에서 특징적인 불규칙 리듬과 화성을 악센트에 의한 리듬 형태와 두 가지 화음 형태로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는 <봄의 제전>이 중학생의 수준에서 악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곡일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봄의 제전> 감상 활동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실린 그림으로는 마티스의 회화로 ‘원시주의’ 음악과 ‘야수파’ 회화 사조의 공통점을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봄의 제전>과 함께 학습하도록 제시된 회화는 다음 <그림-13>과 같다.



● 추상미술 원시자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 입체파 화가인 파카소의 '거울을 보는 소녀'

- 「금성출판사」 p.155



▲ 마티스 '춤 속의 리듬과 색'

- 「(주)교학사」 p.215
- 「(주)지학사」 p.121



음악(유채 / 260×389 cm / 1910년 작)
마티스(Matisse, Henri / 1869~1954 / 프랑스)
강렬한 원색과 면, 선 등을 사용하여 음악에서의 가락과 리듬의 강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주)와이비엠」 p.231

<그림-13> <봄의 제전> 원시주의와 관련하여 제시된 회화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봄의 제전>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작곡가 설명	시대적 배경	양식 표기	악보	그림 사진
(주)교학사	B	O	X	X	제2부 <선택된 처녀 에의 찬미> 시작 부분	마티스 <춤 속의 리듬 과 색>
(주)금성 출판사	B	O	근대·현대음악의 등장 배경	원시 주의	X (리듬꼴과 화성 표기로 대체)	칸딘스키 <컴퍼지션> 피카소 <거울을 보는 소녀>
성안당	A	X	후기 낭만의 반동과 원시주의 등장	원시 주의	<희생의 춤> 2대의 피아노 편곡 악보	X
세광음악 출판사	B	X	X	원시 주의	시작 부분	작곡가 사진
(주)와이비엠	A	O	음악과 미술의 만남	원시 주의	시작 부분	마티스<음악>
(주)지학사	A	O	X	원시 주의	-제1부 제1곡<서곡> 제2곡<젊은 남녀들의 춤> -제2부 제6곡 <신성한 춤>	마티스 회화 <춤 속의 리듬 과 색> 공연 사진
천재 교과서	B	O	20세기 음악의 변화	신고 전주 의	X	작곡가 사진
천재교육	C	O	근대·현대음악의 등장 배경	X	-제1부 제2곡<젊은 남녀들의 춤>	작곡가 사진
현대음악	B	X	다양한 음악 사조의 등장과 그 배경	신고 전주 의	제2곡<봄의 정 후와 젊은 남 녀의 춤>	공연 사진

④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교과서 9종에서 수록되어 원시주의의 강렬한 특징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주의’를 뜻하는 음악 양식의 특징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 음악의 대표적 특징을 ‘다양성’으로 들어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음악 양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때 각 양식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음악사의 흐름을 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양식을 소개하기 전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교과서에 간략하게나마 서술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양식 간의 연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이 필요하다.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으로 1913년 5월 <봄의 제전>이 초연될 당시, 이 공연은 청중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한바탕 소동을 몰고 왔다고 한다. 백병동(1990)³³⁾은 이에 대하여 새로운 음악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될 때는 청중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는 우상을 파괴하는 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상흥분에 쌓이게 된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때에 이미 전 유럽에 닥치고 있었던 전쟁에의 예감, 이러한 기운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안과 초조였다.³⁴⁾ 유럽 사회의 긴장과 분쟁은 곧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봄의 제전>이 작곡됐을 당시 원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스트라빈스키

33) 백병동(1990), (작품을 통한) 현대음악의 흐름, 수문당, p.41

34) 백병동(1990), 상계서, p.41

뿐이 아니었다.³⁵⁾ 윌리엄스, 버르토크, 야나체 등의 음악가와 마티스,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은 민속적 전통에 관심을 가져 세계 각국의 민요와 민속 무곡, 전통 예술 등의 소재를 작품에 끌어들이었다. 입체파 회화의 장을 연 것으로 꼽히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젊은 여인들>은 아프리카의 조각에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이고, <봄의 제전>이 발표된 1913년,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라는 책을 출판하여 원시인과 노이로제 환자간의 유사성을 발표하였다.³⁶⁾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은 <봄의 제전>과 같은 음악에서 ‘무엇’이 새로운 것과 더불어 ‘왜’ 새롭고,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의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 음악적 특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서에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축소되면 의미 전달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내용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에는 지루해지거나 감상 활동에서 중요한 음악적 특징과 활동을 제시하는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지면 구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봄의 제전>의 감상 활동에서 학습 목표의 유형에 따라 교과서의 활동과 이해 영역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학습 목표가 ‘원시주의’ 양식을 이해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면 양식을 규정하게 하는 음악적 요소를 교과서에 구성하여야 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 함께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르토크의 <알레그로 바르바로> 등과 같은 원시주의가 나타난 다른 음악도 함께 소개해 볼 수 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다양한 음악 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의 작품은 보통 1913년까지의 초기 민족주의

35)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81

36) 이석원(1997), 상계서, p.81

음악과 3개의 발레 음악, 그 이후 1951년까지의 신고전주의 작품, 그리고 최후 20년 동안의 음렬음악 등 세 시대로 나뉘어 거론된다. 어떤 작곡가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양식적 변화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스트라빈스키와 같이 극에서 극을 달리는 변신을 거듭하는 작곡가는 찾아보기 힘들다.³⁷⁾ 그러므로 학습 목표가 작곡가에 초점을 둔 경우라면, 작곡가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의 연관성과 그에 따른 음악 양식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다.

3) 달에 홀린 피에로

원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는 17종 중 8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었다.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별 <달에 홀린 피에로> 감상 활동에 따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활동과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 아래의 A, B, C 세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 내용은 다음 <표-25>와 같다.

37)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155

<표-25> 8종 교과서에 제시된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 유형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 A. 표현주의의 이해
- B. 근현대음악과 무조음악의 특징
- C. 작곡가 쇤베르크의 음악 세계

유형 A는 20세기 음악 양식의 하나인 ‘표현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주의의 의미와 그 음악적 특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표현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의 공통점을 제시하며 두 예술 간의 연관성을 언급하였으므로 학습 목표를 유형 A로 구분하였다.

유형 B는 서양음악의 흐름을 중심으로 음악사에서 20세기 음악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20세기 음악의 여러 사조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표현주의 또는 무조음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달에 홀린 피에로>가 수록된 교과서 8종 중 「비상교육」, 「두산동아」, 「성안당」, 「천재교과서」, 「태성」 교과서의 5종이 이에 포함되었다.

유형 C는 작곡가 쇤베르크에 초점을 맞추어 쇤베르크의 업적과 작품, 작곡 기법과 음악적 특징 등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학습 목표로써 「음악과 생활」과 「천재교육」 교과서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는 쇤베르크의 작품 경향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화된 밤>, <달에 홀린 피에로>, <바르샤바의 생존자> 순으로 감상곡을 배열하고, 시기별 음악 양식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교과서별로 알아본 학습 목표의 유형은 다음 <표-26>과 같다.

<표-26> <달에 흘린 피에로>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출판사	학습 목표	유형	
두산동아	근대 음악과 현대의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B	근· 현대음악
비상교육	근현대 음악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B	근· 현대음악
성안당	무조 음악을 이해하고 '달에 취하여'를 감상한다.	B	근· 현대음악
(주)와이비엠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며 감상할 수 있다.	A	표현주의
음악과 생활	쾨베르크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C	쾨베르크
천재교과서	(제시 없음) 내용- 근· 현대 음악의 다양한 사조	B	근· 현대음악
천재교육	근대· 현대 음악의 대표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 보자.	C	쾨베르크
태성	새롭게 창작된 현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적 특징을 구별하여 이야기한다.	B	근· 현대음악

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쾨베르크의 <달에 흘린 피에로>는 이 곡이 수록된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음악사의 이해를 다루는 감상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 곡은 다른 20세기 음악에 비해 다른 영역이나 과목과의 연계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8종 교과서 중 절반이 넘는 5종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 B유형으로 제시되어 주로 음악적 특징과 관계된 서술과 이해 중심의 구성이었다.

그 중 「태성」과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의 유형 B의 학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악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음악요소 중 가락, 화성, 음색의 개념에서 어떻게 음악이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무조음악’의 양식 소개를 따로 지면에 구성하고 ‘무조음악’의 화성과 선율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태성」 교과서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주의’나 ‘무조음악’의 양식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다음 <그림-14>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성」 교과서에 수록된 <달에 홀린 피에로>의 음악적 특징을 음악 요소의 개념적 이해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 활동을 보여준다.

활동 1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병든 달’을 들어 보고, 색다르게 느껴지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 가락: 장조, 단조 등의 음계가 없음.
- 목소리: 성악적 발성에 의한 고운 소리를 피함.
- 화성: 여러 성부로 되어 있지만 전통적 화성이 쓰이지 않음.



♣ 쇤베르크(1874~1951)

<그림-14>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 요소의 개념적 접근 활동(1)
- 「태성」 p.330

다음 <그림-15>는 「성안당」 교과서에 나타난 감상 활동으로, <달에 홀린 피에로>의 주요 음악적 특징 요소로써 ‘화성’과 ‘음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감상할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과제이다.

4 감상하기

각 악기들이 연주하는 무조성의 비화성음과 성악의 슈프레흐스팀메가 어울려 어떠한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감상에 보자.



슈프레흐스팀메(Sprechstimme)는 독일어로 '말소리'라는 뜻으로, 말과 노래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20세기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15>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 요소의 개념적 접근 활동(2) - 「정안당」 p.235

이 밖에도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를 음악적 특징보다는 표현주의 양식에 접근하여 '표현주의'에 초점을 둔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을 제시하고, 칸딘스키가 쇤베르크의 음악회를 다녀온 후 표현한 회화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언급하였다.

■ 표현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

표현주의 음악은 무의식 상태에서의 충동이나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표현주의 미술과 연관된다.



연가곡 '달에 홀린 피에로' — 쇤베르크 작곡



인상 3 - 음악회(유채 / 77.5×100 cm / 1911년 작)
칸딘스키(Kandinsky, Vassily / 1866~1944 / 러시아 → 프랑스)

쇤베르크의 음악회에 다녀와서 청각적 인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노란색은 연주회장의 소리를, 검은색은 그랜드 피아노를 상징한다.

<그림-16>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 - 「(주)와이비엠」 p.231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근현대 음악의 배경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학습 목표에 강조하고 있어서 유형 B로 학습 목표를 구분하였으나, <그림-17>에서와 같이 「(주)와이비엠」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적 구성을 보였다.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중 8곡 ‘밤’ 

“달에 홀린 피에로”는 내적 감정이나 무의식을 묘사하는 표현주의의 대표 작품으로, 박자가 없는 선율, 괴기한 느낌의 음향 등이 매우 독창적인 연가곡이다. 화가 칸딘스키는 “달에 홀린 피에로”를 듣고 그 감상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림-17>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과 회화에서의 표현주의
- 「비상교육」 p.116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달에 홀린 피에로>의 활동 영역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두산동아	B(근· 현대음악)	감상 (음악사)	X	X
비상교육	B(근· 현대음악)		X	미술
(주)와이비엠	A(표현주의)		X	미술
음악과 생활	C(쇤베르크)		X	X
천재교과서	B(근· 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쇤베르크)		X	X

성안당	B(근· 현대음악)	감상 (1. 음악사 2.음악요소 -가락/화성/음색)	X	X
태성	B(근· 현대음악)		X	X

③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달에 흘린 피에로>는 전 3부 각 7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으로 몇몇 교과서에서는 그 중 한곡을 지정하여 감상하도록 하였다. <달에 흘린 피에로>의 제 1부 첫곡인 ‘달에 취하여’가 악보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고, 이 곡을 소재목으로 지정하여 제시한 경우는 「성안당」 교과서와 「천재교과서」이다. 그 밖의 교과서에서는 제1부의 6번곡 ‘마돈나’와 제 2부 첫곡 ‘밤’, 그리고 제 1부의 마지막곡인 ‘병든 달’을 감상곡으로 지정하였다.

연가곡의 형태인 <달에 흘린 피에로>를 구성하는 곡마다 시(가사)의 내용과 악기의 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안당」 교과서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소재목을 지정하여 감상활동을 제시한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그 곡이 감상 활동곡이어야 하는 이유나 특징적인 부분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각 곡의 현황은 다음 <표-28>과 같다.

<표-28> 교과서별 <달에 흘린 피에로> 감상곡 현황

교과서	감상곡
두산동아	달에 흘린 피에로
비상교육	달에 흘린 피에로 中 <밤>
성안당	달에 흘린 피에로 中 <달에 취하여>

(주)와이비엠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과 생활	달에 홀린 피에로 中 <마돈나>
천재교과서	달에 홀린 피에로 中 <달에 취하여>
천재교육	달에 홀린 피에로 中 <마돈나>
태성	달에 홀린 피에로 中 <병든 달>

교과서에 나타난 <달에 홀린 피에로> 악보의 제시 형태를 살펴보면 보통 4-5마디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악보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지만, 주요 선율만을 보여주는 악보와 <달에 홀린 피에로>의 가사와 그 가사의 특징적 표현인 슈프레흐슈팀메(Sprechstimme)의 기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한 악보의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 <그림-18>은 그 두 번째 경우로 이에 더하여 음악적 표현과 그 기보에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음표의 표기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Bewegt ♩ = ca. 66~76

정확한 음정이 아닌 그 음의 비슷한 음으로 연주하라는 표시

Den Wein, den den den Au gen trinkt, glesst

machts den Mond in Wo - gen nie - der, und ei - ne

spring flut ü - ber - schwemmt den stil - len Ho - ri - zont

<그림-18> 악보 <달에 홀린 피에로>-구체적 표현에 대한 지시와 기보법 해설
- 「성안당」 p.235

교과서에 나타난 <달에 홀린 피에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음악사 개관이 따로 구성된 경우에만 간략히 서술되었다. 그것은 역사와 사회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해당 시대의 음악적 경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무조음악’이나 ‘표현주의’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곡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덧붙인 도입 역할로 볼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이나 사진의 구성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작곡가 쇤베르크의 초상화나 사진이 실렸고 3종의 교과서에는 칸딘스키의 회화가 포함되었다. 양식 표기에 있어서는 ‘무조음악’과 ‘표현주의’가 비슷하게 언급되었는데, 두 양식을 함께 표기한 교과서는 없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29>에 나타냈다.

<표-29> <달에 홀린 피에로>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작곡가 설명	시대적 배경	양식 표기	악보	그림 사진
두산동아	B	O	근대·현대 음악의 등장	무조 음악	제 8곡 <밤> 시작 부분	작곡가 초상화 칸딘스키 <구성8>
비상교육	B	O	근·현대 음악의 등장	표현 주의	X	칸딘스키 <인상3-음악회> 작곡가 사진
성안당	B	O	근·현대음악 개관	무조 음악	제 1곡 <달에 취하여> 시작 부분	작곡가 사진
(주)와이비엠	A	O (음악사 부분)	현대의 음악과 미술의 만남	표현 주의	제 1곡 <달에 취하여> 18-22마디	칸딘스키 <인상3-음악회>
음악과 생활	C	X	12음 기법과 시대 상황	무조 음악	제 6곡 <마돈나> 시작 부분 (플루트)	작곡가 카툰

천재교과서	B	X	20세기 음악에서의 변화	표현 주의	X	작곡가 사진
천재교육	C	O	근대·현대 음악의 특징	표현 주의	제 6곡 <마돈나> 시작 부분 (플루트)	작곡가 사진
태성	B	X	X	X	제 7곡 <병든 달> 시작 부분 (플루트, 노래)	작곡가 초상화

④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

교과서 8종에 수록된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에 홀린 피에로>는 표현주의 사조나 표현주의 미술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곡의 음악적 특징과 더불어 학습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석원(1997)³⁸⁾은 쇤베르크의 20세기 초기 무조음악을 표현주의와 직접 연관 짓는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그것은 쇤베르크가 표현주의 회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표현주의 회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했다는 사실과 칸딘스키와 많은 교류를 했다는 점, 그리고 표현주의를 단순한 예술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당시 독일의 정신적·사회적 전반의 활동으로 보는 점이다.

그러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접근 없이 언어로써만 기술될 때에는 문제

38) 이석원(1997), 현대음악-이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p.102~103

점이 야기되는데,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 활동을 ‘표현주의’로만 한정하는 경우 20세기 음악의 여러 양식을 설명하기에 효율적이지만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 많은 교과서에서 이 곡을 ‘내면의 표현’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음악 감상을 통하여 그 부분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혼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내면의 표현’이라는 기술은 낭만주의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표현주의는 그 출발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낭만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다.³⁹⁾ 다만 <달에 홀린 피에로>를 예로 들어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낭만주의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소외된’ 주관성으로 그대로 예술로 드러내고자 한 예술 사조이며, <달에 홀린 피에로>는 가사의 내용과 조성의 중심이 없이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는 무조적 짜임새, 섬뜩한 성악선율, 색채적 악기배합 등을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⁴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학생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곡이 20세기의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재곡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중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에 학습해야 할 음악적 요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이해의 영역만이 아닌 활동 영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의 한정된 지면 안에 학습 내용과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그것은 교사보다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이나 실험정신이 흥미롭게 다가갈 학습에 있어서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낮설고 받

39) D. J. Grout 저(1980)/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1991), 개정 3판 서양음악사(하), p.1034

40) 홍정수·김미옥·오희숙(2010), 개정판 두길 서양음악사(하), 나남, p.410

아들이기 힘든 음악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제시가 필요하다.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을 감상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곡에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표현주의 음악이라고 특징지어지는 음악적 양식이 어떤 이유에서 <달에 홀린 피에로>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어졌는지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달에 홀린 피에로>가 작곡될 당시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그 곡에는 “고립되고 이해할 수 없는 힘에게 붙들려 무력하게 되고, 내적 갈등과 긴장, 불안, 공포, 그리고 본질적이고 비합리적인 잠재의식의 모든 충동의 희생이 되고, 또 기존 질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여러 형식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인간”⁴¹⁾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와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표현주의 음악에 나타난 작곡가 내면의 감정이입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음악과 연결된다면 음악에 대한 관심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감상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서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41) D. J. Grout 저(1980)/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1991), 개정 3판 서양음악사(하), p.1034

V. 결론 및 제언

20세기 음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다. 이는 20세기 음악이 현 시대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20세기 음악을 보다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20세기 음악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시대적인 맥락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학생들은 20세기 음악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동시에 깨우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적용되어 20세기 음악을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수업을 구성하는 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9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17종을 바탕으로 20세기 음악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세기 음악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홀린 피에로>의 내용과 제시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을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나타난 모든 감상곡을 조사하고 시대별로 분류한 결과,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곡 횟수가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 시행시기와 비교하여 2배수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에서 19%, 감상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20세기 악곡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봄의 제전>이 높은 횟수를 보였으며, 최근의 20세기 음악보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음악이 교과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작곡가를 토대로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악곡을 조사한 결과,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작곡가는 드뷔시였고,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가 그 다음을 이루었다.

넷째,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악곡을 연주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악곡은 21곡, 성악곡은 3곡으로 기악곡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악곡과 성악곡의 세분화된 각각의 장르에서도 불균등을 이루어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의 기준이 작곡가와 그 대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주요 감상곡으로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흠린 피에로>의 내용과 제시형태를 학습 목표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거나 학습 목표와 다르게 활동이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

둘째,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추출된 학습 요소와 내용의 일부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아 객관성이 낮았다.

셋째, 서양음악사의 이해 부분에서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경우에 음악사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지만, 감상 악곡만을 제시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서술의 의미가 떨어지고 시대적 맥락을 보여주는 부분이 약했다.

넷째, 20세기 음악에서 감상곡으로 활용된 악곡은 주로 음악사의 이해를 목적으로 제시되었고, 감상을 제외한 영역과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극히 적었다.

다섯째, 음악사를 중심으로 20세기 악곡이 나열된 측면이 강하고, 각 20세기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과 이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에 대한 비교 분석과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20세기 음악은 음악적 특징과 더불어 역사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되어야 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의 연계 활동이 중요하므로, 교과서 집필 시 이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되는 각 제재곡 별 학습 목표는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점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의 각 제재곡 별 학습 내용과 활동은 학습 목표에 따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제시 형태는 교사보다는 학생의 눈높이와 요구에 기초하여 학생 중심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 음악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미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관점에 대한 파악과 수용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음악 교사는 20세기 음악을 지도하기에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학습 내용을 선별하는 관점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하고, 학습 내용이 선별된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도 이러한 과정이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교과서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창의적인 지도법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덕원 · 석문주 · 최은식 · 함희주(2013),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김문자 · 노영해 · 박미경 · 이석원 · 허영한(2006),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 민경훈 · 김신영 · 김용희 · 방금주 · 승윤희 · 양종모 · 이연경 · 임미경 · 장기범 · 조순이 · 주대창 · 현경실(2013), 개정판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 백병동(1990), (작품을 통한) 현대음악의 흐름, 수문당
-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세원(2010), 개정판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정수 · 김미옥 · 오희숙(2010), 개정판 두길 서양음악사(하), 나남
- D. J. Grout 저(1980)/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1991), 개정3판 서양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 Ulrich Michels(1985), 홍정수/조선우 역(2005),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2. 학위논문

- 강은혜(2011), 1945년 이후 현대음악에 관한 지도방안-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삼선(1995),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음악 내용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하나(2013),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세기음악 감상수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성미경(2012),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및 감상곡 내용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유나(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봉주(2000),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음악의 현황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허정윤(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분석 및 제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3. 학술지, 기타

민경훈(2012), 중등학교에서의 현대음악 감상지도 방법, 예술교육연구 제 10권, 제 1호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Contents Of 20th-century Music Represented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Song, Jae-Nyeo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20th-century music in the 17 kind of middle school textbooks which were revised in 2009 curriculum. The musical pieces of 20th-century music in the textbook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composer, and genre and compared education contents of some musical pieces like '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 'Le sacre du printemps', 'Pierrot lunaire' in the textbook for its learning goal.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e elements to be learned and considered what needs to be in the text book and how to compose the contents for each musical piece by a number of references.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20th-century music should be learned on the basis of history, society, and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its musical figure. It is also important to connect musical activity with other art genre such as fine art, dance, performance, etc. These points should be reflected during the writing process of music textbook.

Second of all, since the learning goal of each musical piece in the textbook is different for the author's point of view, the frame of reference should be cleared.

Third of all, the education contents and activities of each musical piece in the text book should be composed logically and effectively depending on its learning goal.

Fourth of all, the activities and its configurations in the textbook should be consisted on the basis of student's level and demands rather than teacher's preference so that students can study 20th-century music during the class enthusiastically under their own initiative.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basis for the standard of selection of each musical piece and learning goal for music lesson and composition of contents and activities in the textbook according to learning goal during the writing process of middle school textbook.

Thus, it is hoped that the music teachers in the field can widen their points of view to select the music textbook and understand the learning goal in it through this research on the analysis of textbook. In add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next curriculum plan and revision of textbooks.

<부록-1> 시대별 분포도-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 () 괄호 안은 백분율(소수점 반올림) 표시임.

시 기 교과서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 악파	20세기	합계
경기도 교육청		1(5)	1(5)	4(21)	4(21)	4(21)	4(21)	1(5)	19
교학사				2(22)	2(22)	3(33)	1(11)	1(11)	9
㈜교학사				2(14)	3(21)	4(29)	2(14)	3(21)	14
㈜금성출판사		1(6)	1(6)	3(17)	4(22)	4(22)	1(6)	4(22)	18
두산 동아		2(10)	1(5)	3(15)	4(20)	5(25)	3(15)	2(10)	20
㈜미래엔			1(17)	1(17)	1(17)	1(17)		2(33)	6
㈜박영사		1(4)	2(7)	4(14)	5(18)	7(25)	4(14)	5(18)	28
비상교육			1(6)	3(18)	4(24)	4(24)	2(12)	3(18)	17
성안당		1(6)	1(6)	2(11)	4(22)	3(17)	2(11)	5(28)	18
세광음악출판사			1(3)	4(12)	7(21)	10(29)	6(18)	6(18)	34
㈜와이비엠		1(5)	1(5)	4(21)	3(16)	3(16)	2(11)	5(26)	19
음악과 생활			1(3)	7(20)	8(23)	11(31)		8(23)	35
㈜지학사				3(23)	3(23)	3(23)	1(8)	3(23)	13
천재교과서				3(20)	3(20)	3(20)	1(7)	5(33)	15
천재교육				2(11)	3(17)	6(33)	3(17)	4(22)	18
태성	2(13)	2(13)	2(13)	2(13)	2(13)	2(13)	1(7)	2(13)	15
현대음악			1(3)	5(16)	5(16)	11(34)	6(19)	4(13)	32
곡수	2	9	14	54	65	84	39	63	330
비율	1%	3%	4%	16%	20%	25%	12%	19%	100%

<부록-2> 시대별 분포도-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 () 괄호 안은 백분율(소수점 반올림) 표시임.

시 기 교과서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 악파	20세기	합계
경기도 교육청				1(13)	2(25)	3(38)	1(13)	1(13)	8
교학사						3(100)			3
㈜교학사				1(25)	1(25)	2(50)			4
㈜금성출판사					2(40)	3(60)			5
두산 동아		1(6)	1(6)	2(12)	8(47)	5(29)			17
㈜미래엔				1(5)	2(10)	12(57)	3(14)	3(14)	21
㈜박영사				3(8)	5(14)	19(52)	3(8)	6(17)	36
비상교육				2(15)	1(8)	10(77)			13
성안당						1(100)			1
세광음악출판사						1(100)			1
㈜와이비엠						5(42)	1(8)	6(50)	12
음악과 생활									0
㈜지학사					1(17)	5(83)			6
천재교과서						2(67)	1(33)		3
천재교육					3(43)	4(57)			7
태성				5(17)	8(27)	12(40)	2(7)	3(10)	30
현대음악				1(5)		14(74)	1(5)	3(16)	19
곡수	0	1	1	16	33	101	12	22	186
비율	0	0.5%	0.5%	9%	18%	54%	6%	12%	100%

<부록-3> 악곡별 교과서 수록 빈도수

작곡가	곡명	수록 교과서	빈도수
드뷔시	아라베스크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	2
	목신의 오후 전주곡	경기도교육청, 두산동아, (주)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주)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천재교육, 현대음악	10
	바다	음악과 생활, 태성	2
	달빛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천재교과서	5
	세 개의 야상곡	(주)박영사	1
라벨	볼레로	경기도교육청, (주)미래엔,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태성, 현대음악	7
쾨베르크	정화된 밤	음악과 생활	1
	달에 홀린 피에로	두산동아, 비상교육, 성안당, (주)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태성	8
	바르샤바의 생존자	세광음악출판사,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3
	현악 4중주	(주)박영사	1
	3개의 피아노 소품	(주)박영사	1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현대음악	9
	페트르슈카	현대음악	1
오네거	퍼시픽231	태성	1
카웰	호랑이	(주)와이비엠	1
홀스트	행성	(주)미래엔, (주)와이비엠, 현대음악	3

작곡가	곡명	수록 교과서	빈도수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주)박영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태성, 현대음악	7
바레즈	아이오나이제이션	(주)박영사	1
버르토크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주)와이비엠	1
	헝가리안 풍경 모음곡 '시골의 저녁'	태성	1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세광음악출판사, 음악과생활, 태성	3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주)와이비엠	1
리게티	아티클레이션(분절법)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박영사, 태성	4
슈톡하우젠	전자연습곡 2번/습작 II	교학사, 천재교과서	2
	접촉	태성	1
	소년의 노래	두산동아, (주)박영사	2
크세나키스	메타스타시스	성안당	1
케이지	4분 33초	(주)금성출판사, (주)박영사,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현대음악	6
	윌리엄스 믹스	(주)와이비엠	1
	폰타나믹스	태성	1
브라운	December 1952	성안당	1
펜데레츠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태성	1
윤이상	가사	태성	1
프랑세	대략 즉흥적으로	태성	1
그로페	그랜드캐니언 모음곡	박영사	1
슈타이너	솔리튜데	태성	1

<부록-4> 작곡가별 분포도

출판사 작곡가	경기도 교육청	교학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태성	현대음악	합계
드뷔시	1		1	1	1		4	1	1	1	1	3	1	1	1	1	1	20
쾨베르크					1		2	1	1	1	1	3	1	1	1	1		14
스트라빈스키			1	1					1	1	1		1	1	1		2	10
케이지				1			1	1			1			1	1	1	1	8
라벨	1					1				1	1	1				1	1	7
거슈인							1		1	1	1	1				1	1	7
슈톡하우젠		1				1	1							1		1		5
리게티			1	1			1									1		4
오르프										1		1				1		3
홀스트						1					1						1	3
버르토크											1					1		2
오네거																1		1
카웰											1							1
그로페							1											1
바레즈							1											1
메시앙											1							1
크세나키스									1									1
브라운									1									1
헨데레츠키																1		1
윤이상																1		1
프랑세																1		1
슈타이너																1		1
합계	2	1	3	4	2	3	12	3	6	6	10	9	3	5	4	14	7	94